

해 외 출 장 결 과 보 고

출장명: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구축 사업” - 한·중 지식인 라운드테이블 및 국제세미나 참석(중국 시안)

I. 출장 개요

1. 출장목적

-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한·중 국제세미나 참석
- 농업세션(주제: 중국 서부지역 신농촌 건설과 한국의 새마을 운동) 주관

2. 출장자, 출장지, 출장기간

출장자	출장지	출장기간
최세균 원장 CHOI Sei-Kyun	중국 시안	2014. 4. 23. ~ 25. (2박 3일)
정정길 연구위원 CHUNG Chung-Gil		
성주인 연구위원 SEONG Joo-In		

3. 출장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지	수행 업무
4.23 (수)	인 천 (09:35)	시안 (11:45)	KE 807	출 국
	13:30-14:30		삼성전자	○ 중국서안 공장 견학 ○ 라운드테이블 참석
	17:00-20:00		크라운호텔 황관연회청	- 한중 지도층 인사 각 15명, 총 30명 내외 - 한·중(섬서성) 지식네트워크 구축 논의
4.24 (목)	10:00-17:50		크라운호텔 황관연회청	○ 한중국제세미나 참석 - 중국 서부지역 신농촌 건설과 한국의 새마을 운동(농업분야)
4.25 (금)	시안 (12:55)	인천 (16:50)	KE 808	귀국

○ 세미나 개요

시 간	주요 내용
09:30~10:00	등 록
10:00~11:00 (60분)	개 회 사: 안세영(한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축 사: 왕리샤(중국, 섬서성정부 부성장) 축 사: 김동선(金東善) 前중소기업청장 환 영 사: 전재원(全載垣) 주서안 한국총영사 기조연설: 안현호(安炫鎬)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11:00~12:00 (60분)	[제1세션 : 산업] 좌장: 김도훈(金道薰) KIET 원장 ■ 서부지역 산업부문 발전방향과 한중 산업협력 방안 ▶ 발표: 장웨이카이(張貴凱) 섬서성 발개위 경제연구소 부소장 “중국 서부대개발과 섬서성의 역할” ▶ 발표: 이문형(李玟炯)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장 “한·섬서성 경제협력 확대방안” ▶ 토론: 최낙균(崔洛均)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페이청룽(裴成榮) 섬서성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소장
12:00~13:30 (90분)	오 찬
13:30~14:30 (60분)	[제2세션 : 농업] 좌장: 최세균(崔世均) KREI 원장 ■ 중국 서부지역 신농촌 건설과 한국의 새마을 운동 ▶ 발표: 쉬장용(徐璋勇) 서북대학 중국서부경제발전연구센터 부주임 “중국 서부지역 신농촌 건설 전략” ▶ 발표: 성주인(成周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의 농업 농촌 발전과 한중 협력” ▶ 토론: 정정길(鄭靖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리수민(李樹民) 서북대학 경제관리학원 교수
14:30~15:30 (60분)	[제3세션 : 인력] 좌장: 박영범(朴英凡) KRIVET 원장 ■ 중국 서부대개발과 한중 인적자원개발 협력방안 ▶ 발표: 양쉐핑(楊學峰) 산시성교육과학연구소 부원장 ▶ 발표: 최지희(崔智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 권경득(權慶得) 선문대학교 교수 명샤오저(蒙曉哲) 섬서성 발개위 간부훈련센터 부주임
15:30~15:50	휴 식
15:50~16:50 (60분)	[제4세션 : 교통] 좌장: 김정철(金敬喆) KOTI 원장 ■ TKR-TCR을 활용한 한중 협력 방안 ▶ 발표: 동치엔리(董千里) 장안대학교 물류학과 주임교수 ▶ 발표: 서종원(徐琮垣)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 예충렬 한국교통연구원 글로벌협력·북한본부 본부장 단위안창(單元庄) 섬서성 물류학회 회장
16:50~17:50 (60분)	[제5세션: 물류] 좌장: 김성귀(金成貴) KMI 원장 ■ 중국 서부대개발과 한중 물류부문 협력방안 ▶ 발표: 거궈(葛炬) 신장농업대 물류공정연구소 주임 ▶ 발표: 이주호(李周昊)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 토론: 김범중(金範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센터장 장바오통(張寶通) 섬서성 사회과학원 학술위원회 부주임
17:50~18:00	폐 회

II. 주요 결과

가. 한·중 지식인 라운드테이블

1. 개요

- 일시: 2014.04.23.(수) 17:00-20:30
- 장소: 중국 시안 크라운플라자호텔 황관연회청
- 주최: 한국 산업연구원, 중국 섬서성정부 상무청
- 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 주시안총영사관, KOTRA 시안무역관
- 참석인원: 한국측 13명, 중국측 15명
 - **한국측:**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이경태 前OECD대사,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김도훈 산업연구원 원장,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김경철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박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임진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원장, 전재원 주시안총영사, 이충면 주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 고윤주 주시안부총영사, 박찬훈 삼성반도체 시안공장 법인장, 이문형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장
 - **중국측:** 姚超英 섬서성 상무청장, 劉西建 부주임, 石英 섬서성 사회과학원 부원장, 李偉峰 상무청 섭외투자처 처장, 曹鋼 中誠경제연구원 원장, 馮根福 서안교통대 경제금융학원 원장, 拜根興 섬서사범대 인문사회과학연구부 부주임, 董千里 장안대 물류관리학과 주임, 葛炬 신장농업대 물류공정연구소 주임, 徐璋勇 서북대 중국서부경제발전연구중심 부주임, 張貴凱 섬서성 발전개혁위원회 경제연구소 부소장, 張建文 섬서성 교육과학연구소 부연구원, 孫子洋 서함투자유한공사 사장, 王國平 시안박애국제학교 이사장, 許海文 진천기계수출입회사 총경리

2. 개최 결과

□ 요지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한중 관계기관(산업연구원과 섬서성 상무청)이 중국 서안에서 4.23-24(2일)간 유라시아 지식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한-중 지식인간 라운드테이블 및 포럼을 개최함.

-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지식인들은 “한국-섬서성 전략적 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한 지식인의 역할”을 주제로 상호 의견을 교환함.
 - 양측 총 28명의 정계, 재계, 학계 인사가 참석하여 경제 인문교류, 농촌 문제, 교육문제, 물류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섬서성 협력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
- 금번 라운드테이블 참석 지식인들은 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공감. 중국측은 시안이 고대 실크로드의 출발지이자, 중국 정부의 서부대개발, 실크로드 경제권구상의 핵심지역으로서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점에서 우리 대통령님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접목되어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위해 한-섬서성간 전략적 협력분야를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인식함으로써 향후 양측간 경제, 문화, 인문 등 분야별 제도적 협력방안을 구축해 갈 수 있는 공동의 지식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함.
- 섬서성은 국제화와 개방화가 동부연안 지역에 비해 낮고, 여전히 정부 관료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구축사업”의 후속조치는 연구기관 중심의 학계인사위주로 추진해 나가기보다는 정부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

□ 세부 내용

1) 회의 진행순서

- 姚超英 상무청장 중국측 인원소개 및 모두발언
- 김도훈 KIET원장 한국측 인원소개 및 모두발언
- 안세영 이사장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구축 추진배경 및 향후 운영방안’ 발표
- 姚超英 상무청장 기조연설
- 이경태 前OEC대사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와 중국, 한국의 역할’ 발표
- 참석자 발언
- 기념촬영 및 KIET원장-상무청장 선물교환
- 만찬
- 총평 및 폐회선언

2) 안세영 이사장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구축’ 추진배경 향후 운영방안 발표

- (대통령 축하 영상 방영) 유라시아는 이제 지난 시대의 단절의 역사를 극복하고 새로운 협력의 실크로드를 열어야 할 때이며,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지난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함.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으로 건설하고, 평화와 번영의 21세기 실크로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주요 국가들의 싱크탱크와 지식인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모으고 공유할 수 있는 지식협력이 매우 중요한 가운데, 이번 정책토론회가 유라시아 국가들의 창의와 역량을 하나로 잇는 지식네트워크 구축의 초석이 되길 기대함.
- 안 이사장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유라시아 국가들이 상호협력을 강화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번영과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토론하기 위하여 ‘한·중지식인 라운드테이블(4.23)’과 ‘중국 서부대개발 한중협력 세미나(4.24)’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양국 산관학 지도급 인사가 모인 이 자리를 빌려,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길 바란다고 언급

3) 姚超英 섬서성 상무청장 기조연설

- 姚 청장은 한국은 섬서성과 경제, 문화, 관광교류가 가장 긴밀한 국가로, 특히 작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은 한-섬서성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
 - 이밖에, 한-섬서 교류협력 성과로 2010부터 매년 한-섬서 경제협력 포럼 개최, 2012 중국(섬서)-한국우호주간 개최, 2012 섬서성-산업자원통상부 경제무역 강화 MOU 체결, 2012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입주, 2014.4.2 중소기업지원센터 개소 등을 제시
- 姚 청장은 2013 섬서성 GDP총액은 서부지역 GDP의 45%를 차지하는 등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서부대개발 전략적 거점으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소개하며, 섬서성 경제발전요인으로 △풍부한 인문, 역사, 에너지자원 △높은 종합과학실력 △철도, 항공, 도로 교통 발달 △新서부대개발 및 실크로드경제벨트 전략 추진에 따른 정책적 지원을 제시

4) 이경태 前OECD 대사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와 중국, 한국의 역할’ 발표

- 이 前대사는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는 대변화기에 특히 중국과 한국은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를 형성해 가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무역을 통해서 발전한 중국과 한국은 다자적인 자유무역질서를 회복하고 더욱 굳건히 하는 데에 기여해야한다고 언급
- 이 前대사는 또한, 한국과 중국이 위치한 동북아시아는 경제적으로는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 외교-안보적으로 긴장과 갈등이 심화되는 “아시아의 모순”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는 요인이며, 아시아의 모순을 해소하고 아시아의 공동번영과 평화, 나아가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아우르는 유라시아공동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 중 양국이 긴밀하게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

5) 참석자 발언 요지

[劉西建 섬서성정부연구실 부주임]

- 劉 부주임은 서부대개발, 실크로드경제벨트 거점으로 부상하는 섬서성의 4가지 발전기획 즉, △교통허브 구축 △西高東低 발전모델 추진 △산업구조 고도화 △경제의 쾌속발전단계 진입에 관해 간략히 언급하고, 이 가운데 한-섬서성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새로운 동아시아의 기적을 공동으로 만들어나가길 바란다고 언급

[石英 섬서성사회과학원 부원장]

- 石 부원장은 한-섬서는 문화적으로 유사점이 많고, 한국의 대중문화는 중국인들의 깊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며, 문화교류는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중요한 창이므로, 향후 인문사회분야의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언급

※ 섬서성 사회과학원은 정부직속의 전문연구기관으로 경제, 농촌, 금융, 문화, 종교, 정보화 등 분야의 10개 연구소가 소속되어 있음.

[김동선 한국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 김 원장은 한국기업 진출사례가 거의 전무하였던 10년 전 시안의 모습과는 달리 현재 삼성전자를 비롯해 많은 한국기업이 진출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중소기업의 투자처가 동부연안에서 서부내륙으로 옮겨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
- 중소기업지원센터 시안사무처 설립을 계기로 향후 한국기업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더욱 많은 한국기업이 진출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성정부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

[曹鋼 中誠경제연구원 원장(前섬서성행정학원 부원장)]

- 曹 원장은 △한-섬서의 문화적 상호유사성 △경제적 상호보완성 △공고한 협력기반 △협력분야의 다양성을 근거로 한-섬서의 경제협력의 중요성 및 잠재력에 대해 강조하면서, 민간연구기관인 中誠경제연구원도 한-섬서의 공동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언급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 최 원장은 한국의 농촌문제(농촌고령화, 도농격차 격화, 지역사회 기능상실 등)와 최근 나타난 귀촌·귀농현상은 중국이 현재 혹은 향후 직면하게 될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한중 국제세미나를 통해 농촌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

[馮根福 서안교통대학경제·금융학원 원장]

- 馮 원장은 중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 혁신능력제고 △실력 있는 중소기업 양성 △신도시 건설 △국유자본 이용효율 제고를 실현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중진국 함정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한국으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얻길 바란다고 언급

[김경철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 김 원장은 70, 80년대 한국이 고속성장을 이루며 당면했던 세 가지 교통문제 즉 △교통정책관련 사회비용낭비 △심각한 대기오염 △높은 교통사고 발생률을 제시하는 한편, 이는 현재 고속성장을 구현하고 있는 중국이 당면한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교통정책관련 한국의 성공 및 실패 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연구하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언급

[拜根興 섬서사범대학 인문사회과학연구부 부주임]

- 시진핑 주석의 실크로드경제벨트 구상과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공동체 구상을 이행하는데 있어, 경제 분야뿐 아니라 인문 분야의 교류도 강화해 나가길 바라며, 양측의 학자 상호 파견방문 및 공동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언급

[박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 박 원장은 경제발전의 동력이자 사회 불평등 해소의 해결책으로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직업교육에 대한 투자 및 제도와 관련하여 한국의 성공경험을 중국과 공유하길 바라며, 늘어나는 대졸자의 취업난 문제 등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에 관해 함께 논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

[임진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원장]

- 임 부원장은 최근 한국의 항만 및 물류기업의 중국 서부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서부지역에 대한 이해부족과 네트워킹 구축의 미비로 인해 진출 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설명하면서, 향후 한국 물류회사의 서부진출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동 기관은 중국의 유관기관과 공동연구 및 교류를 확대하고, 서부지역에 진출하는 한국 물류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중국 각지에서 여러차례 물류 관련 포럼을 개최한바 있으며, 작년 시안 장안대학과 MOU를 체결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 강화를 추진중

[徐璋勇 서북대학 중국서부경제발전연구중심 부주임]

- 徐 부주임은 중국서부경제발전연구중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한-섬서 교류협력의 기회요인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대대적인 지원 △소비주도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금융, 증권, 보험 분야의 광범위한 협력 가능성을 제시
- ※ 중국서부경제발전연구중심은 서부대개발정책 추진이후 서부정책수립에 관한 연구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전국에 21곳(서부지역 2곳)이 있으며, 매년 중국서부발전보고, 중국서부경제발전보고를 발표.

동 연구중심은 한국대외경제연구원과 MOU를 체결하고, 연구원 파견 및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한국 관련기관과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중

[전재원 주시안총영사관 총영사]

- 본직은 한국, 섬서성의 저명한 석학들이 시안에서 뜻 깊은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내일 세미나를 통해 논의되는 교통, 농촌, 해양수산, 물류, 직업교육 문제는 양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로, 금번 행사를 통해 좋은 협력안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언급
- 중국 역사문화의 중심도시, 서부대개발 중심도시인 시안이 시진핑 주석의 실크로드경제벨트 구상이 제시됨에 따라, 그 지위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한-섬서의 교류협력은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며, 2년 전 1,000여명에 불과했던 우리 교민수는 현재 5,000명에 육박하고, 이른바 ‘삼성효과’로 60여개의 협력사를 비롯한 한국기업 진출이 급증하였으며, 특히 작년 대통령님 방문을 계기로 한-섬서성 관계가 높은 수준의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부언

[張貴凱 섬서성 발전개혁위원회 경제연구소 부소장]

- 장 부소장은 한-섬서 경제무역협력이 최근 급속 발전하는 가운데, 향후 협력분야가 사회, 문화 분야로 다원화되어야하며, 이를 위해 연구기관과 지식인들이 기여해야한다고 강조
 - ※ 동 기관은 한국산업연구원과 한-섬서 공동연구 및 상호방문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이충면 북경대사관 공사참사관]

- 이 공사참사관은 유라시아지식네트워크 구축과 한중양국의 관계를 격상시키기 위한 과제로 △한중 양국정부 공동이해 정책 추진 노력(한중 FTA 등) △환경, 문화, 관광 등 각 분야 사업의 협력 메커니즘 구축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
- 지식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통해 보다 한중 협력의 틀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제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부언

[張建文 섬서성교육과학연구소 직업교육연구실 부연구원]

- 張 부연구원은 동 연구소는 섬서성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기관이라고 소개하고, 금번포럼에 직업교육이 논의되는 것을 통해 한-섬서 정부 및 각계 인사들이 직업교육을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직업교육관련 섬서성이 직면한 많은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 성공경험을 공유하길 바란다고 언급

[고윤주 시안총영사관 부총영사]

- 고 부총영사는 한-섬서 기업간 협력사례 및 미래협력분야에 대해 소개하면서, 협력사례로는 △SK텔레콤 의료기기 합작사업 △친환경 농약 제조 및 재배기술 사업 △대영에너지 질소산화물제거촉매제 합작사업 △삼성반도체, 삼성SDI 등 제조업을 제시하고, 미래협력분야로는 환경, 신재생에너지, 농업, 교통, 도시개발, 물류 분야를 제시
- 양측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시안총영사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부언

[王國平 시안박애국제학교 이사장]

- 王 이사장은 시안의 한국기업 진출과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한국인 자녀교육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해결 노력이 시급한 가운데, 이 포럼에서 교육문제가 논의됨으로써 한국인자녀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성정부와 시정부의 관심이 고조되길 바란다고 언급
- ※ 시안박애국제학교는 섬서성 첫 번째 국제학교로 현재까지 약 1,000여명의 한국인 학생이 취학

[박찬훈 삼성반도체 시안법인 대표]

- 박 대표는 삼성사업의 시안진출 연혁과 생산제품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시안진출과정에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섬서성 정부에 사의를 표하고, 서부대개발사업 정부정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
- ※ 2013.4.10 MOU 체결, 2012.8.28 중국정부 비준 통과, 2012.9.12 기공식 진행, 2014.5.9 착공식 예정
- 박 대표는 삼성전자 투자진출로 섬서성 외자유치 확대, 산업구조 고도

화, 기술인력 집중 등 측면에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및 환경안전생산 등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

[李偉峰 상무청 섭외투자처 처장]

- 李 처장은 상무청은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로 한-섬서 경제무역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섬서성-한국 각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언급

나. 한중 국제세미나

1. 개요

- 일시: 2014.04.24.(목) 10:00-18:00
- 장소: 중국 시안 크라운플라자호텔 황관연회청
- 주제: 중국 서부대개발과 한·중 협력
- 주최: 한국 산업연구원, 중국 섬서성정부 상무청
- 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 주시안총영사관, KOTRA 시안무역관
- 참석인원: 130명 내외

2. 개최 결과

□ 요지

- 대통령님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우리 산업연구원과 섬서성 상무청은 당지에서 4.23-24간 유라시아 지식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한-중 지식인간 라운드테이블 및 포럼을 개최함.
 - 동 행사의 둘째날 일정으로 “중국 서부대개발과 한-중협력” 주제의 국제 세미나 개최
- 상기 국제세미나는 5개 세션(산업, 농업, 인력, 교통, 물류)으로 구성, 각 세션별 양측 전문가가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2명의 패널과 토론하는 형식으로 전개

- 동 행사에는 분야별 학자 및 전문가를 비롯하여 당지진출 우리기업인과 현지 기업인 등 약 130명이 참석
- 당지 “유라시아 지식 네트워크 구축사업” 2일차 일정(4.24)으로 개최된 “중국 서부대개발과 한-중 협력 세미나”에서는 산업, 농업, 인력, 교통, 물류 등 5개 세부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주제 발표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가진 바, 참석자들은 동 세부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공동 인식하고, 향후 구체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및 민간차원의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함.
- 향후 산업, 농업, 교통, 물류 등 세부분야별 협력 포럼개최 등 각 기관별 후속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

□ 세부 내용

1) 행사 일정

- 개회사(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 축사(王莉霞 부성장,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 환영사(전재원 총영사)
- 기조연설(안현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 주제발표
 - 서부지역 산업부문 발전방향과 한중 산업협력 방안
 - 중국 서부지역 신농촌 건설과 한국의 새마을 운동
 - 중국 서부대개발과 한중 인적자원개발 협력방안
 - TKR-TCR을 활용한 한중 협력 방안
 - 중국 서부대개발과 한중 물류부문 협력방안
- 폐회사(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2) 개회사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 (대통령 축사 영상 방영) 유라시아는 이제 지난 시대의 단절의 역사를 극복하고 새로운 협력의 실크로드를 열어야할 때이며,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지난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함.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으로 건설하고, 평화와 번영의 21세기 실크로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주요 국가들의 싱크탱크와 지식인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모으고 공유할 수 있는 지식협력이 매우 중요한 가운데, 이번 정책토론회가 유라시아 국가들의 창의와 역량을 하나로 잇는 지식네트워크 구축의 초석이 되길 기대함.

- 안 이사장은 실크로드의 거점도시로서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가는 관문인 시안에서 중국 서부대개발과 중·한 협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 것을 축하하며, 동 토론회가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유라시아 시대를 열기위해 양국의 지식인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이 생각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
-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시진핑 주석의 新실크로드 구상에 부흥하여, 한중 양국 기업이 실크로드를 따라 유라시아 지역으로 손을 잡고 함께 진출하여 공동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상생을 실현하길 바란다고 부언

3) 축사(王莉霞 섬서성 부성장)

- 王 부성장은 한중양국은 이천년의 교류 역사를 지닌 이웃국가로, 특히 한국과 섬서성은 경제, 문화, 관광 등 분야에서 상호보완성이 강하여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언급
- 작년 박근혜 대통령의 섬서성 방문과 婁勤儉 섬서성 성장의 방한을 계기로 한-섬서성 교류협력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서술
- 王 부성장은 또한 섬서성은 현재 新실크로드벨트의 新기점, 중국의 서역 개방의 新기점, 지역협력의 新기점, 동서양 문화교류의 新기점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고, 박 대통령께서도 섬서성을 한국의 서역 개방의 중심지역이라고 말씀하신바 있어, 섬서성은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한국기업과 섬서성 및 서부지역의 교류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

4) 축사(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 김 원장은 과거 실크로드를 통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일류문명의 발전을 주도해오던 유라시아지역은 근세기 동서진영간의 냉전으로 그 역할이 잠시 단절되었으나, 이제다시 함께 번영하는 새로운 유라시아를 건설해야한다는 제안이 나오기 시작하였다고 언급
- 박 대통령께서는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으

로 만들어 나가자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였고, 시진핑 국가주석 역시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제안하였다고 부언

- 아울러 금번 토론회가 한중 양국의 우의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기가 되길 바라며, 일회성 행사가 아닌 한중양국의 지속적인 네트워크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

5) 환영사(전재원 총영사)

- 본직은 우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한중지식인 라운드 테이블(4.23)’ 및 ‘국제 세미나(4.24)’가 중국 시안에서 열리게 된 것을 축하하며, 시안은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접목으로 향후 한중양국 협력의 중요한 중심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언급
- 또한, 본직은 오늘날 한중 양국 교류의 무대는 점차 서부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21세기 중국 최대 국가프로젝트중 하나인 서부대개발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여 성과를 내고, 양국정상이 강조한 상호협력의 좋은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
 - 앞으로 시안총영사관은 중국 서부지역에서 양국간 다양한 교류가 더욱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언

6) 기조연설 “중국경제, 서부대개발과 한·중 협력” (안현호 무역협회부회장)

- 안 부회장은 중국은 지난 30년간 고속성장을 이룩하여 현재 제2의 세계 경제대국으로 발전하였으나, 기존의 △요소투입형 성장 △투자 및 수출 주도형 성장 △개혁개방 정책기조 정체 △자원 및 환경소모적 성장모델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며, 선진국형 발전모델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
 - 한국이 IMF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진국합정을 극복하고 혁신주도형성장모델로 전환한 경험은 중국의 발전에 귀중한 자산이 된다고 언급하고, 이를 중국과 함께 공유하길 바란다고 부언

7) 주제 발표 요지

[제1섹션-산업] 서부지역 산업부문 발전방향과 한중 산업협력 방안

좌장: 김도훈 원장(한국산업연구원)

■ 발표1: 서부대개발 전략의 심층적 추진 및 한-섬서 경제무역 협력 도모

張貴凱(섬서성 발전개혁위원회연구소 부소장)

- 張 부소장은 서부대개발 정책 추진에 따른 섬서성의 발전기회에 대해 설명하고, 한-섬서 경제무역 협력방안으로 △한·섬서성 경제무역 新협력모델 수립(산업통상자원부-섬서성 정부간 MOU체결 및 한국산업단지 조성) △경제무역 협력구조 전환(도시건설, 공공서비스, 금융, 관광 등 3차산업 협력 강화) △경제무역 협력 新주체 발굴(기업이 주체, 지방정부는 제도적 지원 제공)을 제안

■ 발표2: 한·섬서 산업협력 현황과 협력 확대방안

이문형(산업연구원 북경지원장)

- 이 소장은 한·섬서성 교역 추이와 특징에 대해 분석하고, 한·섬서성 산업협력 확대방안으로 △산업협력 다변화 △산업협력시스템 구축과 구체적 협력목표수립 △우선협력산업 집중추진(IT, 소프트웨어, 문환관광, 녹색·환경보호, 신에너지 바이오·현대농업, 미용·성형의료, 섬유·의류)등 제안
- 2002~2013년 한·섬서성 교역액 연평균 증가율 20.2% 기록(동기간 한·중교역액 연평균 증가율 17.9%), 수출구조는 섬유중심에서 전자기계중심으로, 수입구조는 비제조업중심에서 제조업중심(전기전자, 수송장비 등)으로 전환

[제2섹션-농업] 중국 서부지역 신농촌 건설과 한국의 새마을 운동

좌장: 최세균 원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발표1: 중국 서부대개발 중의 신농촌건설과 한중협력의 기회

徐璋勇(서북대 중국서부경제발전연구중심 부주임)

- 주요 내용: 중국의 신농촌건설의 배경과 내용, 서부지역 신농촌건설의 주요 성과, 농가의 정책적 요구, 시급한 문제, 서부지역 신농촌건설 중

한중협력의 기회

○ 중국의 신농촌건설 추진 배경

-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국민경제의 쾌속 발전으로 국민의 의식주 해결을 실현하였으나 21세기 진입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 이면에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나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 등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자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편의 하나로 ‘신농촌건설’을 제기하였음.
- 중국정부는 2006년 중앙1호문건인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의견(关于推进社会主义新农村建设的若干意见)》을 통해 신농촌건설을 공식 선언하였음.

○ 주요 성과: 농업생산여건 개선과 생산성 제고, 농가소득 급증, 농촌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농촌공공서비스 향상

○ 문제점: 소득수준 여전히 저하 및 소득원 단조, 농촌기초시설과 공공서비스 건설 미미, 해농정책 집행 미흡

○ 한중협력 방안:

- 협력의 기초: 한국은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은 신농촌건설 가속화에 대한 절박한 요구가 존재하고 있음. 그리고 중국의 국가신형도시화계획(2014-2020)을 추진함으로써 서부지역의 신농촌건설에 상당한 내용을 부여하였음.
- 협력방안: 중점도시 기초시설건설(오수처리능력건설, 쓰레기처리능력건설, 가스난방능력건설 등을 포함), 녹색도시와 스마트도시 건설(녹색에너지개발, 녹색산업단지건설, 기초시설디지털화 등을 포함), 농촌양로서비스산업, 교육과 의료보건산업, 농촌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협력이 필요함.

■ 발표2: 한국의 농촌 발전 동향과 시사점

성주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은 1960년대 이후 본격적인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농촌 인구의 도시 이동을 수십 년 간 겪었음. 그 과정에서 농업 부문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었으며,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농가소득도 정체되는 상황임.

- 최근 들어서는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농촌 인구 구성이 다변화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의 농촌은 고령화와 과소화가 두드러짐.
- 최근 한국의 농촌정책에서는 분권과 지역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상향식 마을만들기 방식으로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인구 고령화로 제약이 큰 상황이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상향식 농촌개발의 체계를 갖추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음.
- 한국의 경험에 비추어, 농촌개발과 근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유라시아 국가들에서 견지해야 할 정책 접근법을 제시해볼 수 있음. 무엇보다 농촌의 자족적 기반을 갖추는 노력이 요구됨.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 부문이 침체를 겪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농업을 근간으로 하여 농촌 지역경제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함. 한국에서는 최근 지역순환경제를 새롭게 형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농촌경제의 자족성을 높이려고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농촌에 대해 국민들이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한국의 경우 농업·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놓고 농업 부문과 비농업 부문 간에 뚜렷한 의견 차이가 나타나기도 함. 농업·농촌의 발전이 국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데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정책 당국에서 이끌어야 함.

■ 토론: 정정길(한국농촌경제연구원), 리수민(서북대학 경제관리학원 교수)

[제3섹션-인력] 중국 서부대개발과 한·중 인적자원개발 협력방안

좌장: 박영범 원장(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발표1: 핵심산업 발전에 관한 섬서성 직업교육 수요 분석 및 건의

楊雪峰(섬서성 교육과학연구소 부소장)

- 楊 부소장은 섬서성 직업교육체계는 직업교육-기업간 커뮤니케이션체계 미비로 인해 업계수요와는 일정한 거리가 존재한다고 분석하고, 기업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전문성이 강화된 직업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진단

- 한-섬서성 직업교육 협력에 관해 △직업교육 학교간 교류협력 강화(교수, 학생 상호파견) △직업교육자원 협력 개발(인재양성방안, 교재, 교구 등) △직업학교 교육과 생산 실습기지 협력 건립 △직업교육 연구협력 전개 등 방안을 건의

■ 발표2: 서부지역개발과 한중 인적자원개발 분야 협력 방안

최지희(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최 선임연구위원은 경제발전의 추진동력으로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직업교육 진흥책(고교단계, 전문대단계) △직업교육 제도 개혁(‘특성화고’로 명칭변경, ‘마이스터고’제도 실시, 직무능력표준 도입, 현장중심 교육체계 도입)에 대해 소개
 - 한국의 우수한 제도적 사례(마이스터고, 사내대학 및 사내연수원 제도, 능력중심 훈련제도 등)를 중국과 공유하여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언급

[제4섹션-교통] TKR-TCR을 활용한 한중 협력 방안

좌장: 김정철 원장(한국교통연구원)

■ 발표1: 중한 국제철도 물류통로 연계방식 및 필드라인 효과

董天里(장안대 물류 및 공급사슬 연구소 소장)

- 董 소장은 중·한 대륙교물류통로 연계방식 △해운-철도복합운송 △철도페리 △해저터널 △국제철도를 제시하고, 각 방식별 필드라인 효과를 비교분석하여 설명
 - △해운-철도복합운송은 기존의 철도, 해상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어 실현하기 쉬우나, 선박 환적 및 중계가 필요 △철도페리는 필드라인 조직효율은 높지만, 물류절차가 많고 페리터미널의 편조운행이 요구 △국제철도는 북한을 통과해야함에 따라 정치적 문제 개입 △해저터널은 중계절차가 적어 필드라인 효율은 높지만 기술적난이도가 높다고 분석

■ 발표2: TKR-TCR 연계를 통한 효율적 유라시아 철도망 구축

서종원(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 서 부연구위원은 유라시아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유라시아 물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한국-북한-중국

- 중앙아시아-러시아-유럽-북한교통물류망)구축 및 TKR(한국철도)-TCR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
- 한중 철도연계구상으로 단기적으로는 열차페리, 중장기적으로는 북한통과 육상연결, 장기적으로는 해저터널을 제안

[제5섹션-물류] 중국 서부대개발과 한·중 물류부문 협력방안

좌장: 김성귀 원장(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발표1: TCR 물류 및 관련 국가 협력 전망

葛炬(신장농업대학교 물류공정연구소 주임)

- 葛 주임은 TCR(신유라시아대륙교)에 대해, TCR의 컨테이너 해운-철도 복합운송서비스는 항공운송보다 편리하고, 해양운송보다 속도가 두 배 빠르다는 경쟁력이 있으며, 기업의 운송방식 선택에 있어 화물가치와 운송비용 외에도 시간이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TCR은 시간단축, 안정적 통행, 비용절감이 가능한 최적의 물류루트임을 설명
- 한국, 중국, 카자흐스탄, 러시아가 동북아, 중앙아시아, 동북유럽의 산업분업협력을 적극추진하고, 유라시아대륙교의 동서 양방향으로의 물류균형을 실현하여, TCR경쟁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경제효율을 높여야한다고 부언

■ 발표2: 중·중앙아시아 연계 물류인프라 구축과 한·중 물류협력방안

이주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 이 부연구위원은 한·중 물류협력 사업분야로 △ 국제포워딩 사업, 철도 컨테이너 ODCY사업, 설비/건자재 운송사업, 유통기업지원 물류사업, 완제품 운송 물류사업 등을 제시하고, 정책협력분야로 △한·중 물류장관회의 강화, 한·중 물류협력위원회 설립, 물류장벽 점진적 해소, 물류부분 적용기술 보급 및 혁신역량 강화, 복합운송 물류체계 강화를 제안

8) 폐회사(김도훈 한국산업연구원 원장)

- ‘한중지식인 라운드 테이블(4.23)’ 과 ‘국제 세미나(4.24)’ 는 △첫째, 두 나라 정상에 제기한 구상의 첫 번째 답을 찾기위한 논의 △둘째, 양국이 가장 오랜 협력관계를 가졌던 장소에 다시 모여 양국의 협력방안을 논의 △셋째, 미래 협력방안을 논의 △넷째, 산업, 농촌, 직업교육, 교통, 물류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협력관계 논의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

- 이러한 뜻 깊은 자리가 일회적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의 시발점이 되길 바라며, 한, 섬서성 각 분야별 지식인들이 더욱 자주모여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중국 섬서성인민정부 연구실 간의 지식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일시: 2014. 4. 24(목) 16:30-17:30
- 장소: 크라운플라자호텔 1층 비즈니스룸
- 내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중국 섬서성인민정부 연구실/섬서성발전연구중심 간의 협력 추진 논의. 중국측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거 향후 인적 교류, 자료정보 공유 및 공동연구 추진 계획 등에 관한 MOU 체결을 검토하기로 합의
- 참석자:
 - KREI: 원장, 정정길, 성주인
 - 섬서성인민정부 연구실: 부주임, 曹可清 처장, 李凡 연구원